

북방의학 - 『황제내경』

첫마당. 고대 한의학의 두 유파

『한서』 「예문지」	주요 서적	지역	이론적인 관심	치료수단	이후의 발전
醫經	『內經』 『난경』	북방	인체의 구조 (생리적)	針, 脈	금원시대-육기병기, 장부병기 명대-온보파, 명문·상화이론
經方	『상한론』 『본초경』	남방	병의 기전 (병리적)	方藥	송 이후-상한학파 청대-온병학

둘째마당. 『黃帝內經』 - 龍伯堅의 『황제내경개론』을 따름

1. 『황제내경』의 이름

『漢書·藝文志·方技略醫經』: 『黃帝內經』十八卷, 『外經』三十七卷

서한 말에 劉歆이 편집한 『七略』에 기초하여 동한의 班固가 편찬
→기원전 1세기말에 이미 『黃帝內經』이라는 명칭의 책이 존재하고 있었다.

【방증】 - 倉公이 그의 스승인 陽慶으로부터 받은 醫書

①黃帝扁鵲之脈書 - 切診(脈診)

②上下經 - 『素問』「疏五過論」, 「陰陽類論篇」에서 책이름이 나옴.

「氣交變大論」에는 『上經』, 『痿論』에는 『下經』이 인용.

「病能論」: “『上經』은 기가 하늘에 통하고 있는 것을, 『下經』은 疾病의 變化를 말한다.”

③五色診 - 『素問』「玉版論要篇」: “『五色』, 『脈變』, 『揆度』, 『奇恒』 등의 醫書에서 말하고 있는 道는 하나이다.”

④奇咳術 - 『素問』「病能論」: “『奇恒』은 奇病에 관한 것을 말한다.”

⑤揆度 - 「玉版論要」: “揆度이란 病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病能論」: “『揆度』이란 觸診하는 것. 揆란 觸하여 病을 탐지하고, 度이란 四時를 推察하여 病의 所在를 찾는 것을 말한다.”

⑥陰陽外變 - 陰陽理論

⑦藥論 - 『神農本草經』의 前身

⑧石神 - 砭石學, 刺針療法

⑨接陰陽禁書 - 陰陽理論

【결론】

1. 이 당시에는 『黃帝內經』이라는 명칭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음
2. 『黃帝扁鵲之脈書』라는 하나의 책에 의해서 의서와 黃帝와의 관계가 발생하고 있음.
3. 前漢 말기(기원전 1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黃帝內經』이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황제와 의서가 맺어진 이유는?

- ① 陰陽·五行說이 鄒衍에 의해 완비 - 鄒衍이 黃帝를 특별히 추켜 올림.
- ② 당시에는 尊古賤今 사상이 유행 - 神農이나 黃帝를 통해 권위를 획득.
- ③ 사상적으로 道家와 밀접한 관계 - 「黃老」라는 말이 생겨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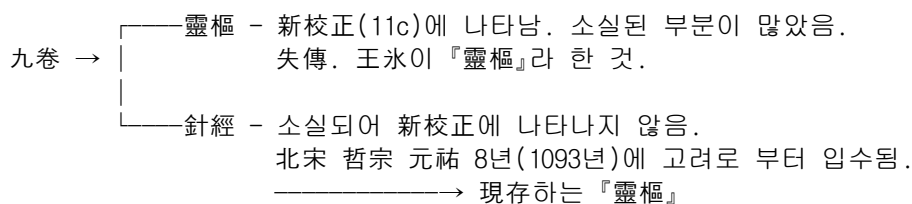
2. 내경속의 두 책, 『소문』과 『영추』에 대하여

- ① 『素問』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나타난 곳 - 張仲景의 『傷寒論』 自序.(3c초)
- ② 『靈樞』라는 명칭이 최초로 나타난 곳
王氷 『素問』注.(8c중엽)
「三部九候論」의 「治其經絡」에 붙인 注: “『靈樞』에서 말하기를”
「調經論」의 「神氣乃平」에 붙인 주: “『針經』에서 말하기를”

『영추』의 이름 변화

九卷 —————> 針經 —————> 靈樞		
漢 張仲景『傷寒論』自序 西晉 王叔和『脈經』	晉代 皇甫謐『甲乙經』自序	唐代 王氷『素問』註釋

- ③ 『素問』 「三部九候論」의 「中部人手少陰也」에 대한 王氷注에서 『靈樞』 持針縱舍論을 인용.
그 현행본에는 그 편이 없다. (그 문구는 현행본의 「邪客」에서 볼 수 있다.)



3. 『황제내경』이 저작된 시대

【소문】

1. 전기부분: 「六節藏象論」의 第1章과 「天元起大論」 이하의 “大論 7篇”, 그리고 그밖의 후대의 저작을 제외한 전부.
편작에서 창공사이에 저술됨.
① 扁鵲傳에 실려 있는 病理·診斷·治療法이 『素問』의 내용과 유사. 『素問』에 비해 간결.소박
② 陰陽·五行說을 논하지 않는 부분은 기원전 4세기의 저작이며, 논하는 부분은 기원전 3세기 중엽의 저작이다. (추연이 BC340 ~ 260에 살았음)
③ 『사기』에는 창공이 방약을 많이 사용했는데, 『소문』은 針이 중심.

2.『素問』 후기부분의 저작으로 「六節藏象論」의 第1章과 “7편의 大論” .

1)빨라도 2세기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 .

2)어쨌든 소문의 원래 내용은 아니라는데 대체적으로 동의 .

3)정설은 송대 임억의 并論補亡說

*근거

①『易緯通卦驗·卷下』의 二十四氣의 계절병이 『素問』 후기의 이론체계와 유사

②「至眞要大論」에 藥物의 上中下 三品에 대한 서술. →前漢 말기 本草書가 나온 이후

③ “大論 7편” 의 干支紀年은 後漢의 章帝 元祐 2년(BC.85)에 四分曆이 공포된 이후

④ “大論 7편” 중에 설명된 五臟과 五行의 配合에서 今文說을 따름 →東漢 이후는 古文說

3.따로 후대에 저작된 부분이다.(소문 유편. 9~10세기 전후)

「刺法論」과 「本病論」. 이는 전통적으로 소문의 원문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영추】

1.戰國시대 ~ 前漢,後漢.

一人 一世의 작품이 아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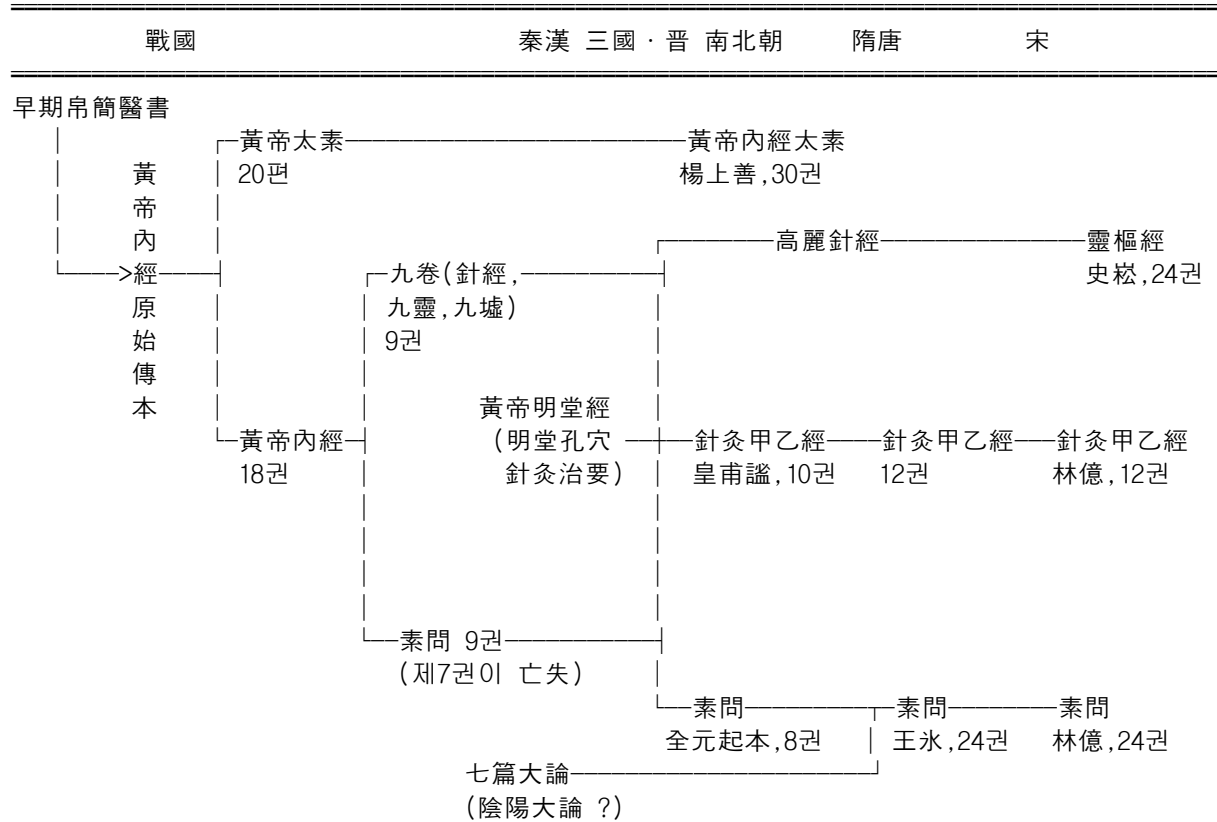
2.일반적으로 『영추』의 가치는 소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3.임응추 같은 이는 『영추』가 소문보다 오래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근거로는 경맥학설이나 장부학설을 볼때 영추가 더 소박하며, 『소문』에서 “經曰:” 한 것이 영추에 나온다는 것이다.

4.일반적으로 『靈樞』는 침에 관한 내용, 경락에 관한 내용이 많으므로 『針經』이라고 한다.

4. 내경의 초기 전본계통 - 마계흥 『중의원헌학』을 따름



셋째마당. 『내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1. 내경의 주석서 - 홍원식 『중국의학사』를 따름

. 전체적인 교정과 주석

唐	王冰	黃帝內經素問註釋本
明	吳昆	素問吳註 24권
明	馬蒔	素問註證發微 靈樞註證發微
清	張志聰	素問集註 靈樞集註
清	高世式	黃帝內經素問直解

*기타 특이한 것.

1) 全元起 - 梁代 『內經訓解』 失傳, 林億 등의 新校正本에 반영. 8권 71편이 최초

2) 林億 - 宋代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현존하는 최초의 刊版本

3) 『靈樞』 - 현존하는 것은 宋代의 史崧이 개편한 것으로 모두 24권이다.

재편집

隋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元	滑壽	素問鈔
元	李浩	素問鈎元
元	李李安	內經指要
明	張介濱	類經（圖翼,附翼）
明	李中梓	內經知要
清	汪昂	素問靈樞類纂約注

특정주제, 부분

1) 昝翁고 - 송대 『素問拾遺方論』

2) 劉完素 - 금대 『素問玄機原病式』

3) 張從政 - 금대 『儒門事親』중 일부. 예) 「風痺痿厥近世差互說」

남방의학 - 『상한론』

장중경의 상한론

1. 장중경에 대하여

본명은 張機, 字는 仲景.

동한 때 南陽郡 사람. 대략 20 초로 화타보다 약간 늦다.

장사 태수였다는 것과 『傷寒雜病論』을 지은 것을 제외하면 고증되는 것이 없다.

실존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2. 장중경의 시대

*建安 13년 적벽대전

“공이 적벽에 이르러 유비와 싸워 유리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욱이 큰 병이 있었다. 관리와 병사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많아 이에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三國志 · 武帝記』”

*疫은 役이다. (Trichett, 英) - 병의 가혹함을 진시황의 使役의 혹독함에 비유.

13세기 까지는 2세기에 역병의 발생이 가장 빈번하다. - 맥닐 『역병과 세계사』

로마문명사 } 약 60년 동안에 실크로드를 통한 疫疾이 성행.
중국문명사 }

*장중경이 상한론을 지은 이유

“나는 원래 종족이 많아서 전에는 2백이 넘었다. 그러나 건안 원년 이래 채 10년도 못 되어 3분의 2가 죽었다. 상한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그 가운데 10분의 7이었다. 지난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황사하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 슬퍼서 나는 힘써 옛사람들의 경험을 연구하여 익히고 널리 여러 처방을 모았으며, 『素問』, 『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產藥錄』 등의 이름난 저서를 가려 뽑고 「平脈辨證」과 합쳐 『傷寒雜病論』 16권을 편찬했다. 『傷寒論 · 自序』”

3. 『상한잡병론』이란 책에 대하여

원서는 16권. 여러차례 교정, 산실, 첨가 등을 거쳐 전모는 알수 없음.

宋代의 교정 ─ 『상한론』: 상한을 전적으로 다룸

└ 『금궤요략』: 잡병 부분을 따로 편집

*『상한잡병론』의 특징

- 1) 내경의 열병학설을 발전
- 2) 변증논치의 기초
- 3) 열성 전염병 이외의 병에 대해서도 언급
- 4) 진단상 맥과 증을 아울러 중시하는 원칙
- 5) 많은 유효한 방제

6)소박하고 착실한 저작학풍

★상한론의 판본

- 1)宋版傷寒論: 일본에서 간행 - 宋本
- 2)註解傷寒論: 四部叢刊, 成無己 - 成本
- 3)金匱玉函經 - 玉函本
- 4)康平傷寒論 - 康平本

★最 古本에는 傷寒卒病論이란 이름이 붙어 있음.

- 1)傷寒 = 열성질환의 총칭
卒病 = 급성질환을 지칭
- 2)卒=率로 보아 ‘거느린다’로 해석
- 3)傷寒雜病論의 잘못

『상한론』 이후의 상한 연구

하나. 역대의 상한 의가

◆ 王叔和, 170-255年

1. 魏의 太醫令, 『傷寒雜病論』의 정리, 『脈經』 저술

2. 상한론의 정리

1) 산실된 중경의 글을 수집하여 정리, 『傷寒雜病論』을 재구성

2) 상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의 3篇과 卷7의 『辨不可發汗病脈證辨治』 第 15以下の 8篇을 증보

3) 명말정초에 『傷寒雜病論』이 仲景 원저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대한 논쟁

3. 상한론 정리에 대한 평가

1) 추종자

陳念祖 - 王叔和의 『傷寒論』 복구사업과 그 학문적 수준에 대해 깊은 신뢰

『傷寒論殘注·凡例』 “自『辨太陽病脈證篇』至『勞復』止, 皆仲景原文, 其章節起止照應, 王肯堂謂如神龍出沒, 首尾相應, 鱗甲森然, 自不敢增減一字, 移換一節.”

2) 비판론자

柯琴: 상한론의 편차를 완전히 새롭게 고침

『醫宗金鑑』: 「訂正仲景全書傷寒論注」라는 이름

「正誤」와 「存疑」편을 따로 두어 의문을 제기

3) 후대에 커다란 논쟁의 씨앗을 남김으로써 傷寒流派的 形成을 촉진하는 업적

→ 清代 傷寒論 발전의 원동력

◆ 孫思邈

1. 공헌

1) 광의의 傷寒에 대한 구체적 內容을 갖춤

『難經·第58難』: 傷寒을 中風, 傷寒, 濕溫, 溫病, 熱病의 다섯 범주로 구분

『千金翼方』 「傷寒方上·下」: 협의의 상한뿐이 아닌 많은 종류의 열성병들을 논술

→ 광의의 상한을 구체화

→ 후세 溫病學派에 影響

2) 仲景書를 정리, 전파

“江南諸師秘仲景要方不傳”이라 하여 唐初에 『傷寒雜病論』이 流布되지 않음을 歎息

『千金翼方』 第 9, 10卷에 『傷寒雜病論』의 內容을 수록

‘千金翼本’ 『傷寒雜病論』: 392條의 原文과 109首의 方劑를 記載

3) 방제의 보충, 계발

① 『傷寒論』의 編次, 整理의 독특한 특징: “方證同條, 以類相附”

ex) 太陽病 - 麻黃湯法, 桂枝湯法, 青龍湯法, 柴胡湯法, 등등으로 분류

목적: “須有檢用, 倉卒易知”라는 學習과 實用의 效用性을 極大化

→ 清代에 ‘實事求是’적인 학풍속에서 재현

→ 柯琴, 尤怡 등에게 영향

- ②『千金翼方·傷寒上』 “靈方之大意，不過三種；一則桂枝，二則麻黃，三則青龍。此之三方，凡療傷寒，不出之也。其柴胡等諸方，皆是吐下發汗後不解之事，非是正對之法”

→ 三綱定立說의 모태

→ 清代 錯簡重訂流派가 傷寒을 재편한 기준

◆ 韓祇和 - 북송

1. 『傷寒微旨論』

- 1) 佚失된 것을 『永樂大典』중에서 輯出하여 上·下 두권으로 만들

- 2) ‘陽氣內鬱’ 이 바로 傷寒의 基本病機

“寒毒搏於肌膚，陽氣不得散發，而內佛結，故傷寒者，反爲熱病也.”

- 3) 이로 볼때 『傷寒微旨論』은 사실상 온병의 서적

病因 - 伏邪說

病機 - 陽氣內鬱

2. 『傷寒論』 연구의 특성

- 1) “仲景의 心法은 본받되 條文과 方藥에 執着하지 않는다”

→ 후세의 “從仲景法，不拘其方藥” 說의 開端

- 2) 그의 자세

약물의 時候에 따른 變通

三陰寒證에 四逆湯類의 大熱한 藥을 쓰지 않고 病情을 참작하여 理中丸을 투여

“假氣雜病方可用，治傷寒病者亦可投之，豈必待『傷寒論』中有法也.”

3. 후세에 미친 영향

“從仲景法，不拘其方藥”

→ 『六科準繩』의 『傷寒準繩』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後世方을 收錄하여 傷寒治療에 응용

→ 清代의 傷寒學派 - ‘經方派’

經方의 틀 안에서의 變通을 중시

傷寒方, 六經辨證을 雜病의 영역까지 확대

→ 溫病學派 - ‘時方派’

“從仲景法” 과 “不拘其方藥” 의 양면을 모두 철저하게 관철

◆ 龐安時

1. 두가지의 病因說을 제시

- 1) 寒毒說 - 傷寒

광의의 상한이 비록 5종으로 구분되지만 病因은 모두 ‘寒毒’, 단지 사기를 感受한 時令, 地域, 體質등에 따라 다른 證候가 나타남

- 2) 異氣說 - 溫病

『傷寒總病論』: 異氣, 乖氣, 疫氣 모두 流行性이며 急性의 傳染性 感染病으로 사용

- 3) 傷寒과 溫病을 구별

→後代의 溫病학파에 큰 영향

└寒毒-伏邪說

└異氣-新感說

2. 기타 업적

1) 溫毒에 대한 깊은 연구

*溫毒의 五大證과 四時, 五行, 經絡, 臟腑를 連繫시켜 辨證施治

*寒毒, 溫毒등 外感 熱病의 공동 病因인 ‘毒’을 강조

*外感 熱病에 ‘解毒’의 治法을重視

→清代에 余霖 등의 溫病家에게 큰 영향 - 清溫敗毒飲

2) 毒氣의 ‘從化’에 있어서 體質의 素因의 重要性을 강조

*『傷寒總病論.序論』: “凡人稟氣各有盛衰, 宿病各有寒熱……, 假令素有寒者, 多變陽虛陰盛之疾, 或變陰毒也; 素有熱者, 多變陰虛陽盛之疾, 或變陽毒也.”

→ 陳念祖

◆ 朱肱

1. 以方類證의 방법

*百十三方を 條目 - 有關한 條文을 모아 證候類型을 歸納

*各 方의 主證, 辨證 및 隨證加減法을 제시

→ 徐大椿에게 큰 영향: 『傷寒論類方』

2. 六經經絡說

1) 經絡으로써 六經을 解釋

*『傷寒論』의 三陰三陽이란 곧 足의 六經 즉 足太陽膀胱經, 足陽明胃經, 足少陽膽經, 足太陰脾經, 足少陰腎經, 足厥陰肝經이라고 認識

*이 여섯개의 經絡의 循行部位 및 그 生理的 特性에 根據하여 傷寒 三陰三陽 病證의 發生傳變과 그 機轉을 해석

→後代에 傷寒의 三陰三陽을 ‘六經病, 六經病機’ 등으로 부르는 것

2) 傷寒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經絡을 理解해야 한다 = 六經提綱證

3) ‘六經經絡說’의 실질은 사실은 傷寒病證의 定位問題를 설명

4) 처음으로 三陰三陽의 實體와, 분류의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짐

→ 柯琴: ‘六經地面說’

張志聰: ‘六經氣化說’

◆ 許淑微

1. 八綱辨證의 응용

1) 八綱辨證과 六經辨證을 공고히 결합하여 傷寒을 이해

2) 仲景『傷寒論』의 辨證關鍵은 表裏虛實을 명확히 分辨하는데 있다

“傷寒治法, 先要明表裏虛實. 能明此四者, 則仲景三百九十七法可坐而定也.”

3) 表裏虛實을 分類하는 綱領

“仲景云，浮爲在表，沈爲在裏，然表證有虛有實，浮而有力者，表實也，無汗不惡風；浮而無力者，表虛也，自汗惡風也。”

“脈沈而有力者，裏實也，故腹滿，大便不通；沈而無力者，裏虛也，或泄利 或陰證之類

3)八綱辨證은 簡潔明了하여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편리하고 합리적

2.영향 - 溫病學의 발생

1) 吳又可의 『溫熱論』에서 表裏를 準據로 삼아 八綱에 입각하여 病證을 파악

2) 表裏九傳의 理論에서부터 점차 구체적이고 복잡한 衛氣營血辨證, 三焦辨證으로 발전

둘.상한연구의 삼대유파

◆錯簡重訂의 流派

方有執, 喻昌, 吳謙 등

1. 주장

1) 『傷寒雜病論』의 조문 자체에 대한 의구심

상한론이 이미 오래되어 訛傳되거나 빠진 것이 많다.

王叔和의 編次 후에 顛倒, 錯亂이 더욱 심화되었다.

2) 傷寒論 原文을 재차(重) 정리하고 考訂(訂)하는 氣風

清初 經學의 經典의 眞僞를 考證하고 實證하고자 하였던 博證의 學風에 영향

2. 方有執 - 錯簡訂正의 방법론을 제시

1) 削: 『傷寒論.傷寒例』 - 王叔和의 위조 -> 과감히 삭제

2) 移: 『辨脈法』과 『平脈法』 - 王叔和가 지었지만 仲景의 글도 일부 포함

-> 남겨 놓기는 하되 篇末로 옮겨 배치

3) 改: 전면적인 條文의 系統的 재배치

太陽病┐衛中風 - 桂枝湯證과 그 變證에 관한 條文 66條, 20方

└榮傷寒 - 麻黃湯證과 그에 관계되는 57條, 32方

└營衛俱中傷風寒 - 靑龍湯證과 傷寒脈浮, 脈浮緊의 諸 條文을 모아 38條, 18方

4) 調: 기타 各篇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調整作業

3. 喻昌

1) 傷寒論編次를 개정한 『尚論篇』 서두의 “辨叔和編次之失”, “辨林億,成無己校注之失”, “驗正王叔和序例”

2) 『傷寒論』編次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 王叔和의 재편집과 林億, 成無己 등의 교정과 주석등을 거치면서 난잡하여졌다고 주장

4. 영향

1) 辨證施治派이 합리성이나 실용성이 크다.

2) 그러나 清代의 經學과 考證學의 풍기를 타고 이 세 流派중에서 가장 큰 영향

3) 乾隆년의 『醫宗金鑑』의 『訂正傷寒論注』, 『訂正金匱要略注』에 반영

◆維護舊論의 流派

張守辰, 1589-1668 → 張志聰, 1610-1674 → 張錫駒, 17세기 陳念祖, 1753-1823 등

1. 주장

- 1) 錯簡重訂파가 傷寒編次에 불만을 품고 개정한데 대해 반발
- 2) 『傷寒論』은 “章節이 정연하며 前後가 밝게 응하고 血脈을 관통하여 遺漏가 없으며 醫學諸書의 論語, 孟子 격에 해당한다.”
- 3) 王叔和, 成無己를 옹호
王叔和: 仲景의 학설을 비교적 완전히 정리하여 後代에 전하였으니 실로 張仲景의 공신
成無己: 仲景의 설을 곡해하지 않았고 經을 인용하여 그 뜻을 분석하였으니 실로 諸註家 중의 으뜸

2. 陳念祖 - 王叔和의 編次를 변호

- 1) “『辨太陽病脈證篇』에서 『努復』에 이르기 까지 모두 仲景原文이며.....증보하여 그 자세한 것을 보충하려 한 것이니 결코 그 뜻에 變亂을 가져 오려는 것은 아니다.”
- 2) “舊論의 모든 條文은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옳은 것이니 오직 그 法을 지켜 仲景의 學問을 전하여야 한다.”

◆辨證施治의 流派

1. 기본입장

- 1) 청초 錯簡重訂의 流派와 維護舊論의 流派의 잡다한 논쟁에 반발
- 2) 오로지 실용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 3)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張機의 辨證心法을 천명하여 최대한 실재임상에서 응용하는 것

2. 저술방식에 따른 세부류

- 1) 以方類證派: 柯琴, 徐大椿
麻黃湯證, 桂枝湯證 등과 같이 方으로 分證
- 2) 按法類證派: 錢潢, 尤怡
治法에 근거하여 正治, 怪病, 失治,등으로 分證
- 3) 分經瀆證派: 陳念祖, 包誠 등
經證, 府證, 變證 등으로 귀납하고 다시 그것을 證에 따라 분류

金元四大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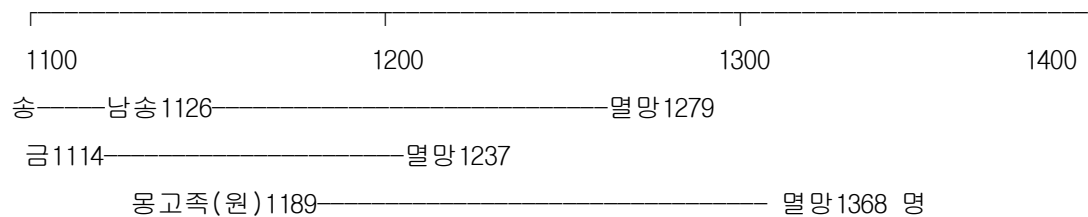
시대적 背景

W宋나라가 중국 中原을 통치하던 중 滿洲에 거주하고 있던 女眞族은 A.D 1114년에 그들의 추장 阿骨打를 중심으로 金나라를 세웠다

W그후 金은 1126년에 京城을 함락시키고 宋은 남쪽으로 밀려나 다음해 南京에서 南宋을 세움

W한편 蒙古족의 태무진은 정복을 시작하여 1237년 金도 멸망시킴

W蒙古족은 국호를 元이라 개칭하고 1279년에 南宋까지 멸하여 중국을 통일,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함.



宋代 의학의 특징

W醫經보다는 經方이 발달

W의학지식 널리 보급, 지식층의 의학참여

W和劑局方 유포: 기존처방 정리, 臨床의학 발달, 科의 세분화, 鍼灸法 발달 등의 잇점도 있지만 某病에 某藥을 쓴다는 식의 풍조를 유발

W주로 傷寒論과 運氣學說의 연구가 특징

劉完素

金나라 사람으로 河北 河間에서 태어나서 이름을 河間이라 부름. 河北지방은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地帶가 높고 기후가 寒冷하였으며 주민들은 氣稟이 壯實하였고 飲食이 厚濁하였다.

그시대 宋나라가 金나라의 침략을 받아 戰亂이 계속되었고, 母親이 병에 걸려 죽게되자 의학에 뜻을 두어 貧苦한 백성을 구하고자 결심하였다.

劉完素 의학사상:

『素問玄機原病式』 『素問宣明論』 『傷寒標本』

1. 『五運六氣의 응용과 亢害承制論』

六淫病變說--그는 病機를 運氣로 해석하고 六氣즉 風寒暑濕燥火가 모든 병의 根本이 된다고 하여 병을 오운육기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러나 機械論的인 運氣론은 부정하였다. 六淫중 가장 중요시 된것은 風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六淫이 단순한 하나의 病因 개념이 아니고 一層 深化되어 病機와 病變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五運六氣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氣의 작용이 過度하거나 不足하게 되면서 서로 相生하거나 相剋하는 氣의 작용을 받게되는데 그중 <素問 六微旨大論>의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外列盛衰 害則敗亂生化大病』이라 하여 亢害承制論을 重視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自然界에서는 『如春令 風木旺而多風 風大則反涼 是反兼 金化制其木也』 疾病이 進行되는 과정에서는 『木極似金 金極似火 火極似水 水極似土 土極似木 故經曰 亢則害 承乃制 謂己亢 過極則 反似勝己之化也』라고 하였으며 假狀變化를 정확히 判別해야 한다고 하였다.

2. 『病機十九條』

『素問至眞要大論』에 있는 내용으로 임상경험중에서 질병의 어떤 유사한 證候를 어느 하나의 病因, 臟腑내에 歸納시켜 辨證에서 병인을 찾는 근거로 삼게 19조로 열거하였다. 이들 病變을 파악하면 일부 복잡한 증상에 대하여 簡略하게 요약할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大略적인 분류일 뿐이다.』

“20 諸澁枯고 乾勁준갈 皆屬於燥” 을 추가

3. 『主火論』

『素問玄機原病式』에서 질병을 六氣로 분류하였는데 그중 火와 熱에의해 발생하는 것이 약 1/3인 56종으로 대부분 질병이 火와 熱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風寒躁濕이 변화하여 化火生熱하거나 火熱이 風寒躁濕을 발생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W火와 風과의 관계

風은 木에 屬하고 木은 火를 生한다 하여 『火本不燔 遇風冽乃焰』이라 하였고 반대로 『凡人 風病 多因熱甚而風』이라 했다

W火와 濕과의 관계 『積濕成熱』, 『濕病本不自生 因生於火熱 鬱 水液不能宣通 即停滯而生水濕也』라고 하였다

W火와 躁와의 관계

躁病은 中寒吐瀉하여 亡液而成燥하거나 寒濕相鬱하고 營衛不能開發하여 發하나 대부분 『風能勝濕 熱能耗液』하여 생긴다하였고 『金燥雖屬陰而其成異於寒濕而反同 於風熱火也 又加大便乾澁爲大腸受熱 化成燥澁』이라 했다.

W火와 寒과의 관계

『冷熱相併而反陽氣 鬱不能宣散 熱內作以成熱證者 不可亦言爲冷 當以成證辨之』 이상과 같이 六氣諸從火化 현상이 나타난다. 치료에 있어 寒冷藥을 善用하였으므로 그를 主火派 혹은 寒冷派라 부른다.

劉完素의 치료 방법

W辛涼解表法(辛溫之劑 使用後)

W表裏雙解法

W下法(腹滿, 喘急)

W養陰退陽法(음-津液, 양-火熱)

劉完素 의학사상이 후세에 미친 영향

그의 六氣論과 主火論은 四大家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火의 작용이 그에 의하여 크게 부각되었다. 같은 파로는 穆子昭, 羅知悌, 葛雍, 張從政등이 있으며 후에 六氣病機學派와 溫熱學派에게 영향을 미쳤다.

劉完素 의학사상의 비판

이론이 主觀的이며 推理的요소가 많은 동시에 歸納的이고 經驗的인 면이 부족하였다. 그의 이론중 가장 많은 비판을 일으킨 것은 “大部分 疾病이 火라는 主火論과 이러한 火를 모두 實物로 보고 寒冷藥으로 질병을 치료했다”는데 있었다. 그를 가장 비판한 사람은 張介賓으로 <景岳全書一辨河間>에 구체적인 病理를 들어 비판하였다.

張從政

字는 子和이고 청소년기부터 의학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劉完素를 공경하여 그의 이론을 많이 따랐다. 항상 知己인 麻知機와 常仲明등과 의학을 강구하였으며 그의 저서에는 麻知機가 정리 편찬한 『儒門事親』이 있다.

張從政의 의학사상

그의 의학사상은 六門三法으로 特徵지워지는데 劉完素의 영향을 받아 질병을 六氣 즉 風寒暑濕燥火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질병은 內傷 外傷 內積 外積등으로 분류하였고 치료에 있어서는 汗, 吐, 下 三法을 多用하였다.

1. 『功下論과 汗吐下 三法』

그는 질병이 內因이건 外因이건 그것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邪氣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치료에 먼저 攻邪를 하여 邪氣를 除去하면 元氣가 저절로 回復되며 攻邪의 방법에는 汗吐下 삼법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汗-風寒의 邪氣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이 피부나 경락에 있을 경우

吐-風痰, 宿食으로 胸隔이나 上脘에 있을 경우

下-寒濕瘀冷이나 熱이 下焦에 침범하여 아래에 있을 경우에 사용하며 汗法の 일종으로 出血療法을善用하였다.

2. 『慎用補法』

무릇 질병에는 虛症을 補하는 데에도 氣의 偏勝을 重視하여 그 偏勝함을 制하면 不勝者가 스스로 平하게 되니 그 有餘함을 瀉하는 것이 그 不足함을 補하는 것이라 하였다. 補法을 완전히 排除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慎重히 하였으며 『養生當論食補 治療當論藥攻』이라 하여 食補를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그는 『扶正足以驅邪』라는 치료원칙을 고수했다.

張從政 의학사상이 후세에 미친 영향과 비판

明清대 溫熱病을 치료하는데 많이 응용되어 주로 溫熱학자들이 이를 繼承했다. 비판의 소리

는 그의 이론이나 治法이 너무 偏狹하여 虛損症을 다루는데 疏忽했다는 것이다.

朱震亨은 <張子和 攻擊注論>에서 『因大梧攻擊之法 必其人充實稟質本壯 乃可行也 否則邪去正氣傷 小病必重 重病必死』라고 하였다.

李杲

自號는 東垣老人,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으나 당시는 金元이交叉되는 시기로 주민생활이 무척 어려웠다. 1201-1208년에 흉년과 전염병이 돌아 여러 사람과 함께 母親도 돌아가시자 이러한 영향으로 당시 易水에서 이름을 떨치던 張元素에게 의학을 傳授받아 羅天益에게 傳受

李杲의 의학사상

1『氣化이론과 脾胃의 생리기능』

氣化---內經 陰陽應象大論에 『氣歸精 精歸化,精化爲氣』라고 하여 이미 인체내의 여러 生命物質이 서로 轉化한다는 것을 말한것이다. 특히 송대의 철학자인 張載가 元氣의 설을 발전시켰고 이후에 醫家들은

W체내 생명물질의 相互 轉化

W인체의 發育生長

W損傷과 消耗물질의 재생과 補充

W臟腑의 생리기능 發揮機轉

등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개념을 응용했다. 李東垣도 『人以胃氣爲本 蓋人受水穀之以生』이라 하여 元氣의 근본인 脾胃를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脾虛則臟腑經絡 皆無所受氣而得病』 『脾胃虛則 九竅不通』

『胃虛元氣不足 諸病所生』

** 升降運動 **

升降浮沈은 脾胃가 中樞의 역할을 한다. 그는 특히 성장과 升發적인 면을 강조했으며 補脾胃藥에 柴胡 升麻의 藥을 配合했다. 時時刻刻 運動變化하고 있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升降浮沈 변화라고 보고 이것이 바로 天地陰陽生殺의 理致라 하였다.

心 肺

자연계의 모든 사물이 時時刻刻 변화--升降浮沈로 표현

春夏--地氣浮升 陽生陰長 萬物萌芽 枝葉茂盛

脾胃

秋冬--天氣沈降 陽殺陰藏 枝葉枯落

肝 腎

李 東垣--升發에 대한것 더 強調

2.『致病原因』

陰火는 脾胃가 虛弱하여지거나 飲食不節, 勞役過度, 精神刺戟등으로 인하여 元氣가 虛弱해지면 발생한다 하였다. 3가지 요인말고도 신체적 素虛도 內傷病的 한 要因이라 생각했다.

3. 『病理變化』

『脾胃氣虛則下流于腎 陰火得乘其土位』

『火與元氣勢不兩立 故曰 壯火食氣 氣食少火 少火生氣 壯火散氣』라 하여 元氣와 陰火는 相互制約하는 관계가 있어 元氣가 부족하면 陰火가 旺盛하여 得勢하며 반대로 元氣가 充滿하면 陰火가 自然히 斂下降한다 했다. 脾胃는 中焦에 있기때문에 升降운동의 中樞가 된다. 비위가 건강하게 운동하여야만 『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清陽發理 濁陰走五臟 清陽實四肢 濁陰歸六腑』의 정상적인 運行을 할 수 있고, 脾胃氣虛하여 盛강이 失調되면 五臟六腑, 四肢九竅에 여러가지 병변을 발생한다.

內障眼--『元氣不生 則胃氣下流 胸中三焦之火及心火乘于肺 上入腦 灼髓 火主散溢 瞳孔開大』

內傷 惡寒--『若胃氣平常 飲食入胃 其營氣上行 以舒於心肺 以滋養上焦之皮膚 理之元氣也. 卽下流 氣心肺無所稟受 皮膚間無陽 失其營衛之外護 故陽分皮毛之間虛弱 但見風見寒 或居陰寒處 無日陽處 便惡之也』

4. 『肺之脾胃虛』

脾胃氣가 虛損하여 陽氣를 不伸하여 肺氣를 滋養하지 못한 병변으로 이를 土不生金 이라 부른다. 증상은 卷怠嗜臥 四肢不收의 脾氣虛증외에 惡寒 不樂 面色惡而不和 등의 肺와 有關한 증을 보이고 치료는 補脾胃而升清陽하였다.

5. 『腎之脾胃虛』

脾胃가 虛損하여 寒邪가 上侮한 병변.

즉 內傷元氣가 부족하여 陰火가 上熾하면 煩熱口渴의 熱證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열을 實火로 誤認하여 下法으로 다스림으로서 元氣를 더욱 손상시켜 陰寒邪가 이틈을 타고 上攻하기때문. 증상으로는 上熱如火 下寒如冰 目中流水 耳聾耳鳴 膝下筋急 肩胛大痛하며 치료는 溫腎回陽을 해야 한다하여 沈香溫胃丸을 創製했다.

6. 『治法과 病因』

補中益氣湯 만듬. 補土派, 主氣派라고 불리운다

7. 火與元氣不兩立論

『所以少火之火 無物不生 壯火之火 無物不耗 可見少與壯勢不兩立 一勝一負 故火爲元氣之賊』

李杲의 의학사상이 후세에 미친 영향

易水學派

羅天益---東垣先生之學 醫之王道也

王好古---溫陽生氣, 補火生土(明代 脾陽보다 腎陽을 중시하는 이론적 創始者가 되었다)

葉桂---養胃陰論, 甘涼藥 多用(脾胃論 補強)

李杲의 의학사상에 대한 후세의 비판

W脾胃의 陽만을 중시하여 脾胃之陰을 보지않음

W辛躁升發之品을 습관적으로 사용(補脾)

W臟器間的 相互 影響과 作用을 충분히 把握하지 못함(脾胃와 肺,脾胃와 腎관계만을 서술)

W陰火를 心火라 하여 心의 正常的인 개념과 혼동을 일으킴

朱震亨

元나라 사람. 그가 태어난 赤岸이라는 곳에 丹溪라는 개울이 있어 그를 丹溪라고 하고 혹은 그를 존경하는 뜻에 丹溪翁이라고 부른다. 40세때 유학을 버리고 의학에 전념, 스승을 찾아 전국을 배회하다 44세때 비로소 당시의 名醫 羅知悌를 만남. 저서로는 格致餘論,局方發揮,本草演義補遺,丹溪心法등이 있다.

朱震亨의 의학사상

劉完素와 같은 派인 羅知悌의 영향을 많이받음 그가 寄居한 東方지방은 풍토가 濕하고 주민들의 體質이 柔弱하였으므로 羅知悌는 그에게 清金降火之法을 傳受시켰다

1.『陽有餘 陰不足論』

인체는 생리적으로 陽氣가 많고 陰氣가 항상 부족하여 補陰을 해야 한다는 이론
根據

W天은 陽이며 地는 陰으로 天大地小하고 日은 陽이요 月은 陰으로 日常圓 月常缺하다.

W人身의 陰精이 難成易虧하다(남 8*8=64 여 7*7=49 精絕經閉)

W內經에『陽道實 陰道虛』『至陰虛 天氣節 至陽虛 地氣不足』이라 함

W心은 陽이고 肝,腎은 陰이다.

W人身의 相火는 易動하고 이것이 妄動한 즉 陰精을 瀉하게 함

情欲이 쉽게 妄動하면 相火가 熾盛하게 되어 病變이 발생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것이지,人體의 眞陽을 가리쳐서 한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주로 陰精을 보호하는데 있지 人身의 眞陽之氣가 有餘하므로 攻伐을 함부로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後代 張景岳이 말한 陽非有餘의 陽은 달리 眞陽을 말한 것이다.

2.葯性の 變遷

辛溫(傷寒論)----辛凉(劉河間)----甘溫(李東垣=補氣)-----滋陰(朱丹溪)

3.『相火論』

劉完素의 主火論과 이고의 陰火論에 영향을 받아 火의 작용을 강조

인체내에는 본래 燃燒될만한 것이 없으나 生理 및 病理 변화시에 모두 火의 증상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因其動而可見의 徵驗이라 하였다. 즉 모든 動氣를 火라 하였고 火에는 君火와 相火가 있어, 君火를 人火, 相火를 天火라 했다. 이러한 화는 虛無에서 생하고 그 작용이發할때 나타나며 상화는 자연과 생명활동의 근본으로 인체의 肝腎에 奇하여 있고 膽, 膀胱, 心包, 三焦에도 分屬되어 있다. 그러나 상화가 五性에 感하여 妄動케 되면 眞陰을 損하여 賊邪가 된다. 결론적으로 丹溪가 생각하는 相火는 神秘하지 않고 다만 인체가 生生不息하는 機能活動일 따름이다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 『君火以明 壯火以位』

朱震亨의 학설이 후세에 미친 영향

戴思恭-陽氣易亢陰氣易乏

汪機-陽有餘陰不足이란 衛氣가 有餘하고 營氣가 不足하다는 뜻으로 營氣를 補하는 것이 補陰 虞搏-그의 저서 「醫學正傳」에서 陰不足이란 氣虛 血虛 陽虛 陰虛로 나누어 隨證用藥 해야지 寒冷한 葯만 쓰면 안된다.

朱震亨의 의학사상에 대한 비판론

丹溪는 『人非此火 不能有生』==常 『相火 元氣之賊』==變 이라 하여 후에 張景岳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나 丹溪는 相火의 象과 變에 대해 모두 相火라 불렀고 景岳은 象을 相火라 했고 變을 邪火라고 부른 것이 다를뿐이다.

사대가 理論의 특징

1. 환경에 順應하는 이론의 開發

劉完素: 河北의 한랭한 기후와 주민들의 강인한 체질사이에서 발생한 질병들이 局方의 辛熱之劑로는 치료가 불능하므로 主火論을 주장하고 寒冷葯을 사용하여 효과를 거둠.

李杲: 당시 昏亂한 사회에서 주민들이 極度로 虛弱해져서 발생한 질병의 원인을 外傷이 아닌 內傷으로 보고 補氣론을 주장

朱震亨: 비교적 안정된 사회에서 陰精의 妄泄로 인한 질환이 多發하자 滋陰論을 주장하여 損泄된 陰精의 보충을 주장하였다

2. 유파의 형성

金元시대에 傳染病的 발생등으로 질병이 다양해져서 局方만으로는 치료가 未洽하여 새로운 의학이론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각자의 임상경험과 관점이 不同하였으므로 서로 相異한 獨創적인 이론을 주장하여 類派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劉完素: 主火派, 寒冷派

張從政: 主外派, 攻下派

李杲: 主氣派, 補土派

朱丹溪: 主陰派, 滋陰派

夫門戶立則有爭 爭則醫理明而學始有進

3. 立法定方

和劑局方으로 인한 그릇된 의학풍조로 의학은 침체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하게 되자 좀더 근본적인 이론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金元시대에 이르러서는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확실한 이론적 바탕위에서 處方을 구성하는 「立法定方」의 氣風이 싹트게 되었다.

劉完素：防風通聖散, 雙解散

張從政：邪去正安, 攻下法

李杲：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朱震亨：大補陰丸, 四物湯加 知母黃柏

이들 사대가들에 의하여 뚜렷한 根據없이 증상과 처방만을 연결시키는 나쁜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火에 대한 사대가 이론의 차이와 비교

金元代에 이르러 크게 부각된 火는 劉完素가 처음으로 강조하면서 張從政과 더불어 병리적인 實火로만 인식되었고 이고는 병리적인 측면에서 虛火 內傷火로 해석하였으며 주진형은 相火론을 주장하여 火의 病理적인 面뿐만 아니라 生理적인 작용도 강조하였다. 즉 주진형에 이르러 相火는 사람의 생을 유지하는 原動力으로 그 작용이 밝혀지면서 그 眞價를 인정받게 되었다.

W 君火, 相火(素問 天元氣大論)

W 少火, 壯火(素問 陰陽應象大論)

W 龍雷之火(素問 王冰 註)

W 眞火(宋代 嚴用和)

W 陰火(金 李東垣)

W 相火(元 朱丹溪)

君火 = 心火를 말함. 心은 君主之官이므로 이렇게 말함

相火 = 君火에 相對해서 말한 것으로 君火와 相火가 상호 配合되어 臟腑를 溫養함으로서 기능활동을 推動한다. 일반적으로 命門, 肝, 膽, 三焦는 모두 그 속에 相火가 있으며 相火의 근원은 주로 命門에서 발한다.

人火 = 夫病之微小者 猶人火也 實火

龍火 = 夫病之大甚者 猶龍火也 虛火

龍火 = 腎

雷火 = 肝

眞陽 = 命門

少火 = 일종의 具有하는 생기의 火로서 인체의 정상생리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壯火 = 일종의 興奮된 병리의 火로서 精氣를 消耗하여 인체의 정상생리기능에 影響을 미침

陰火 = 원래는 생기의 少火요, 水穀을 腐熟한 眞陽이다. 그러나 氣不足으로 上逆하여 壯火가 된다.

┌劉河間┐主火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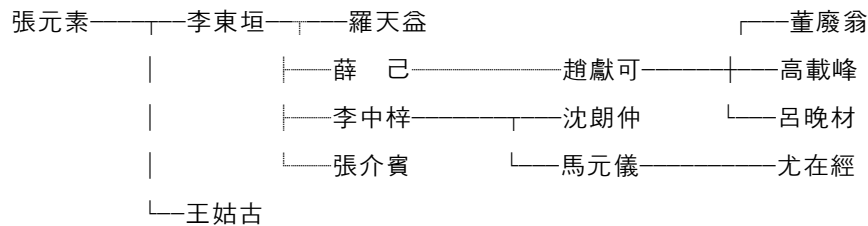
└李東垣┐火與元氣不兩立(元氣, 相火=陰火)

└朱震亨--相火(生理的,病理的)

└張介賓--相火:生理 邪火:病理

*臟腑病機學派(易水學派)

嚴用和-「古人云 補腎不如補脾 余謂補脾不如補腎 腎氣若壯 丹田火經上蒸脾土 脾土溫和中焦自治 隔開能食矣」



*氣化

心--혈의 생성,水液의 蒸騰,溫化,開合,생장발육

脾--統血,水濕運化

肺--肅降,宣發

肝--疎泄

腎--納氣,排泄

1.張元素：臟腑의 寒熱虛實에서 질병의 발생과 병리 연구

2.李東垣：『脾胃論』『內外相辨或論』

3.羅天益：三焦辨治

4.薛己：陽虛發熱---補中益氣(升舉清陽)|東垣

陰虛發熱---六味地黃(培養陰血)|錢乙 脾胃 더 강조

5.趙養葵：補腎,腎命門水火之說 八味丸---補命門火

六味丸---補腎水

6.李中梓：脾---後天之本

腎---先天之本 水火相濟,補血滋陰보다 補氣養陽

7.張介賓：陰有餘陽不足 命門之火==元氣

腎水之水==元精

營血---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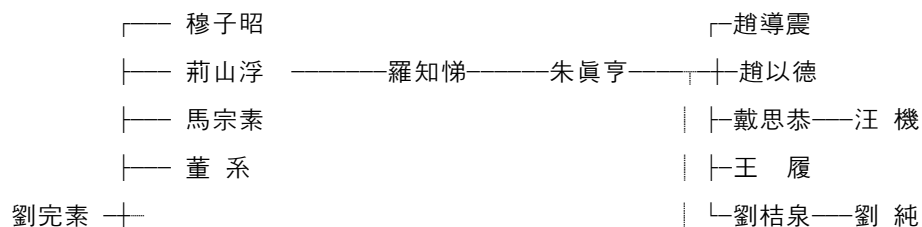
真精---腎

宗氣---肺

神明血脈---心

陽氣---肝

*六氣病理學說



┌ 張從政
└ 葛 雍
┌ 劉 洪
└ 常 德

┌ 王 綸
└ 虞 搏

1. 劉完素：燥熱. 圖注素問要旨論, 素問玄機原病式
2. 朱丹溪：濕熱. 陽有餘陰不足, 후세 滋陰派의 원조
3. 張從政：邪去正安, 慎補食補, 風從火化, 濕與燥兼